



전주대, 지역 평생교육 체제 구축 합동 포럼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에서는 도민들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될 <시민대학>과 고등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라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이뤄졌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

한 적극적인 제도마련 및 고등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대의 협약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게 돼 고무적이며 앞으로 도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청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강모 기자

평생교육 활성화... 지자체·대학 협력 필요

양정선 기자

고등평생교육 체제 구축·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북도에 최적화된 도민친화형 고등평생교육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대학’과 ‘전라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수현 전북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와 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협력안으로 시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범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장은 발표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거점센터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내용을 종합해 전북도와 전주대는

전주대, 평생교육거버넌스 구축 위한 포럼 개최

지자체-대학 협력 방안으로 ‘시민대학’ 설립 제안도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과제로는 전북형 시민대학 설립·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활성화가 꼽혔다.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동대응 등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평생교육 정책 수립, 교육시

설·공간, 온라인 교육플랫폼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고등평생교육 체제 구축·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대학·지자체·기관 합동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전라북도에 최적화된 도민친화형 고등평생교육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영무기자

전주대 '전북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추진방안 위해 '열띤 토론'

제도·교육체제 적극 마련

전주대학교가 전북 지역 고등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간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융합대학 성인 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에 최적화된 도민 친화형 고등평생 교육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고등평생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 것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와 전주대의 협약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 고무적이며 앞으로 도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도민들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될 '시민대학'과 고등 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북고등 평생교육 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

로 나선 전북도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와 대학간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의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범수 대학평생교육실장은 발표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관련 국가 정책의 흐름과 현황에 이어 고등평생교육 거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염형섭 기자

대학-지자체-기관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전주대, 합동 포럼 개최
거점센터 설립 초석 마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북도에 최적화 된 도민 친화형 고등평생교육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 및 고등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대의 협약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 고무적이며, 앞으로 도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는 도민들



전주대학교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될 ‘시민대학’과 고등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라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범수 대학평생교육실장은 고등평생

교육 거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포럼을 주관한 전주대 한동승 학장은 “이번 포럼이 향후 추진될 전라북도 평생 교육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및 성인학습지원센터가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포럼 열려

전주대, 거점센터 설립 초석 마련

전주대학교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함께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전북도에 최적화된 도민친화형 고등평생교육 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

및 고등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와 전주대의 협약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게 돼 고무적이며 앞으로 도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는 도민들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될 ‘시민대학’과 고등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전북도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범수 대학평생교육실장은 발표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관련 국가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고등평생교육 거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다.

포럼을 주관한 전주대 한동승 학장은 “이번 전북도와의 협약 및 포럼 개최가 향후 추진될 전북도 평생교육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및 성인학습지원센터가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운상 기자

전주대,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 개최

전라북도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앞장

전라북도 고등평생교육 거점센터 설립 초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북도에 최적화된 도민친화형 고등평생교육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 및 고

등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대의 협약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게 돼 고무적이며 앞으로 도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는 도민들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될 <시민대학>과 고등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라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전라북도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의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범수 대학평생교육실장은 발표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관련 국가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고등평생교육 거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이에 포럼을 주관한 전주대 한동승 학장은 이번 도청과의 협약 및 포럼 개최가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및 성인학습지원센터가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